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10월 26일 (제76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단계적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란 얹을 구(構), 지을 조(造), 고를 조(調), 가지런할 정(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뜻한다.

나는 근래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도 구조조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복잡한 율법과 제사법을 단순 명료화해서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여셨다. 단계적 구조조정이다.

요즘 21세기 신인사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곳들이 많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그동안 불리던 부장, 과장, 대리 대신 능력에 따라 실장, 팀장 등 실무담당으로 나뉘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사실 직급이 복잡하면 일이 더딜 뿐 아니라 전달과정에서 오류를 낳는다. 우리 어린 시절 귀에다 대고 말을 전달하는 놀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아프대.'로 출발하는데 다섯 명쯤 넘어가면 '아이가 아파 죽었대.'로 잘못 전달되는 경우를 봤다. 복잡한 전달 체계는 이런 오류를 낳는다. 연평도 사건 때에 복잡한 전달 체계로 인해 대응이 늦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도 단계적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총회장 목사, 담임 목사, 담임교구장, 전도사, 조장, 구역장 등 복잡해서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역량 또한 가는 도중 사그라져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가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남편이라는 직책만 가지고 아내에게 명령할 것이 아니라 아내가 편리하게 해줘야 한다. 매끼니마다 10첩 반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아침은 샌드위치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어린 아이 같은 자가 되라고 하셨다. 신앙도, 생활도, 기업도 단순화하라는 말씀이다. 생활로 직결되는 지혜를 성경에서 배우자.

남을 돕는 것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전국적으로 내리는 가운데, 오는 11월 4일 "평화통일 대구성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답사 차 대구실내체육관을 찾았다.

목사님은 감개가 무량하신 듯 지난 20여 년 전의 소회를 밝히시며, 대구예수중심교회 한송이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장로 및 재직들을 격려하셨다.

"2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집회도 많이 했었고, 이곳을 시작으로 대구교회를 열었

습니다.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곧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길이요,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체육관이 이익을 구하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시민들이 건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려는 것입니다. 부천에서, 잠실에서, 서울시 청광장에서,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지속

며 이 일에 불 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일이 어찌 대구교회만의 일인가? 교단 전체가 일심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일 아닌가?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을 탓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익을 남기는 것은 곧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목적은 서울



평화통일 대구성회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자!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열릴 대구실내체육관에서)

다. 그 땐 꽤 커보였는데 지금 보니 아담하니 참 좋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다. 어제 나는 캄보디아에서 국가를 건져달라고 찾아온 한 기업가를 만났다. 앙코르와트 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나를 알게 되었고,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가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데만 골몰해온 사람이었지만, 이제 영혼을 구하고 국가를 건지는 일에 눈을 뜬 것이다. 무엇이 진정 내 유익을 구하는 길인지 알게 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 내 유익을 구하는 길은 바로 남을

적으로 이 일을 전개하는 이유는 우리 후손들에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를 계 통일된 조국을 남겨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기도의 방과제가 되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나는 누구보다 평화의 가치를 안다. 내 동료들이 월남전에서 무수히 죽어갔다. 전쟁의 혹독한 시련을 몸소 체험한 세대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이다. 나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지핀 평화의 횃불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길 원했는데, 많은 남자 목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목사가 가장 먼저 바통을 이어받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나는 우리 제자들이 가슴을 찢으

시청광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날 여기에 모인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날에 받을 상이요, 이 땅에 남기고 갈 가장 큰 가치이다. 비록 오늘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힘을 내기 바란다. 우리가 오늘 이 성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다. 다함께 손을 잡고 통성으로 평화통일 대구성회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일, 네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들 아닌가? 모두가 하루 휴가를 내더라도 평화통일 대구성회에 적극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평화통일 대구성회 11월 4일(화) 오후 1시 대구실내체육관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26:1~6)



대가를 치른 자만이 그 가치를 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엇에든 무슨 일에도든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옷을 사도, 작게는 껌을 사도 대가를 치러야 내 것이 됩니다. 또 작은 것을 사려면 돈을 적게 내지만, 자동차나 집을 사려면 거금을 내야 하듯, 작은 일을 성취하려면 적은 노력과 희생이면 족하지만, 대업에는 그에 상응한 노력과 희생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는 노력이나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대가를 치른 자만이 그 가치를 아는 법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애쓰고 힘쓴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5천년 문화민족의 긍지를 지켜왔고, 일제침탈의 억압 속에서도 죽음으로 자유해방을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세력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피가 이 땅을 적셨고, 폭압적인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젊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잣더미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 독일의 탄광으로 간호사로, 또 저 열사의 나라에 젊음을 바친 분들이 있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을 돌린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희생과 노력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는 괴상한 소리나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변천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가깝게는 아펜젤러와 같은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

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불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출31:38~40). 어디 그 뿐입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는 무려 십사년을 봉사하며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치른 대가 역시 절대 작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꿈 하나 해몽 잘해서 신데렐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처구니없이 당한 현실 앞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 습니다. 부지런 함과 성실, 정직...



총회장 이초석 목사

노예의 신분으로 가는 곳마다 신임을 받은 것은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약관의 나이에 국무총리 대신이 된 것은 그의 피나는 노력과 눈물겨운 희생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와 복을 받은 것도 일천 번제라는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림절의 축복이 주어진 것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의 금식기도와 용기가 담보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얻으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거저 주었더니 가치를 모르고 마귀의 밥이 되어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외아들을 둔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라 아까운 게 없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답니다. 그러다보니 아들이 너무 해픈 겁니다. 뒤늦게 아버지는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 하루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네가 직접 돈을 벌어 오너라.”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여본 적

이 없는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짜증스런 얼굴로 방을 나오자 이 말을 엿듣던 어머니가 “걱정마라. 엄마가 돈을 줄 테니 네가 벌어들인다고 하면 된다.”고 아들을 도박시켰습니다.

이를 후, 아들은 어머니가 준 돈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받고 아들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더니 활활 타고 있는 폐치카에 돈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텅텅히 이를 바라다볼 뿐이었습니다. “이건 네가 번 돈이 아니야. 네가 직접 번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니?” 아

들은 ‘어떻게 아버지 가 눈치 채셨을까?’ 하고 는 방을 나 왔 습

니 다.이 번 에 도 어머니는 아 들에게 돈을 주 었습니다. 그러나 아버

지는 이것 역시 폐치카에 던져 버리고는 직접 돈을 벌어들라고 호통을 쳤 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하는 수 없이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이 돈은 정말 제가 벌었습니다.” 하며 돈을 드리자 아버지는 이 돈도 폐치카에 던져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내 돈! 안 돼요!” 하며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네가 번 돈이 맞구나. 돈을 벌어서 돈의 가치를 알겠지?” 하며 아들을 힘껏 안았습니다. “네, 아버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돈을 아끼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벧전2:9). 우리는 이처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

려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수욕을 참으시며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싼 값이 아님은

공짜는 독약에만 들어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는 엄청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가 잘못을 해도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4).

반면 신앙에도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신앙의 저해요소는 다 잘라내고 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3~14).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6~27).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곡식의 귀중함을 압니다.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성공의 진가를 모릅니다. 힘들고 애쓰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당신이 맺을 결실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기쁨으로 후일을 바라보십시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대가, 곧 실로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치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을 떠났고, 그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따냈습니다. 야곱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 찾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이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라반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이십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객원컬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도 구조조정 하셨다

나는 지난 철야예배 때 놀라운 설교를 들었다. 나이 60이 다 되도록, 40여년 신앙 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느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 말씀이다. 아마 인류 역사에 처음하신 설교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도 구조조정 하셨다’ 이다. 하나님도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셨다. 그러나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절차를 간소화 하여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 하셨다는 말씀이다. 복잡한 제사법 절차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으로 구조조정 하셨다는 것이다. 율법의 복잡한 과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짚어준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만인제사장시대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직고시대를 여셨다. 구조조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시끄럽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기득권세력이다. 그때도 기득권 세력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를 받았다. 어제 신문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구상이 자세히 실렸다. 지금 상태로 계속가면 공무원연금제도는 블랙홀이 되어 국가재정을 파탄시키는 괴물이 된다는 것이다. 살 길을 찾기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돈은 더 넣고, 돈을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공멸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는 기대가 생긴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이 역시 반발이 거세다. 기득권세력들이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같은 날 신문에 우리나라 모 기업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건이 게재되었다. 임원 261명 중 81명을 사퇴시킨 것이다. 3년 전 55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10만원이 안 된단다. 3분기 적자폭도 가늠할 수가 없다. 그 업계 우리나라 1위, 세계 1위 기업이다. 왜 이렇게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을까? 위기의식이다. 이대로 가면 기업의 존폐위험에 다다를 까봐 위기의식을 갖고 그나마 여유 있을 때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때를 놓치면 공멸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교구, 가정, 개인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그리고 내일을 위해 구조조정을 생각해 보자. 구대의연한 습관, 경제, 생각, 영성... 지극히 작은 것까지 세밀히 점검해보고 여유 있을 때 과감히 구조조정 해보자.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세상의 교훈들도 행동해야 내 것이 된다. 말씀하신 자와 함께 있는 말씀은 내겐 죽은 말씀이고, 내가 행동한 말씀은 내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도 구조조정 하셨다. 나야 말할 것도 없다. 다시 한 번 돌아보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

나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서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고 싶은 새내기 크리스천이다. 나는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다. 내 안에서는 예배할 때 불렀던 찬송가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그럴 때는 이전과는 달리 상쾌한 기운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다.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느낌이다. 들떠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하나님은 새내기 교인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하였다. 나에게는 그게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도드리고 있었을 때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도 잊어버렸던 나의 악행이 너무나 또렷하게 떠올라 괴로웠다. 나라는 사람에게 탐조등을 비춘 것처럼 지난간 나의 감정과 행동이 또렷하게 보였고 그것은 분명 죄였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

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 체험을 한 후에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선행을 하고 그간의 죄를 덮으려고 노력했지만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을 때, 어느 집 사님께서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권하셔서 읽어보았더니 내가 겪은 일들이 드디어 이해가 되었다.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감념으로 죄를 선행으로 덮으려 했었다(롬9:32). 그러나 이제는 내 선행이나 노력으로 죄를 사함 받는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매순간 절실히 느끼거나 의식하지 않아도 공기가 존재하듯이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심리컬럼::

사후 가정사고

기말시험을 준비할 때 친구가 알려준 예상문제를 미처 공부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그런 예상문제를 전혀 접하지 못했을 때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왔더라면...!’ 하는 ‘사후 가정사고’는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았던 가상의 대안적 사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후 가정사고는 두 가지 양상으로, 상황적 사후 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 가정사고로 나타납니다. 먼저 상황적 사후 가정사고는 ‘...라면 더 좋았을 텐데’와 같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정하는 사고로 앞에서 살펴본 시험 예시처럼 후회, 실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동반합니다. 한편 하향적 사후 가정사고는 ‘...라면 큰일 날 뻔했다’와 같은 식의 더 나쁜 결과를 가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폐차 처분하게 된 사람이 ‘더 많이 다쳤을 수 있는데, 이만하길 다행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대시킵니다. 사후 가정사고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메달리스트

들이 메달이 확정된 순간과 시상식에서 보인 얼굴 표정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 기쁨의 크기는 메달의 순서와 달랐습니다. 즉,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더 환한 얼굴 표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는 은메달을 딴 선수는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사고로 인해 안타까움이 기쁨보다 큰 반면에, 동메달을 딴 선수는 ‘내가 만일 조금만 방심했다면 메달을 놓쳤을 텐데...’라는 사고로 인해 기쁨이 배가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우리는 상황적 사후 가정사고와 하향적 사후 가정사고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자는 ‘그 때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갈 걸...’ 할 것이고, 천국에 간 자들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後悔)’라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일에 대해 연연해하는 시간소모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며 현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지나간 것을 거울삼아 미래를 더욱 잘 준비할 수 있

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의 처를 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그를 전쟁 최전선에 내보내 죽게 합니다. 그 후 나단 선지자가 이를 지적하자 그는 바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상황적 사후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후회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자 동녀를 취하라는 아랫사람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왕상1:4). 혹은 실패해서 좌절하고 제자리에 멈춰 서신 분이 있으신가요. 축구선수 이영표씨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선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에 기뻐하거나 나쁜 결과에 후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도 연약하고 넘어이지만 ‘하나님 저 오늘 괜찮았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박선인

sunin91@naver.com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는 ‘교만(驕慢)’에 대해 정의할 때 보통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선택한 수단을 더 신뢰하는 것’, ‘겸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겸손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저 일은 꼭 내가 해야만 돼’,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일을 할까?’, ‘역시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나는 지금같이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좀 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룬 뒤에 몇몇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모두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틀 속에 가둬놓고 그분을 제한하는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몇몇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나친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지나친 겸손함도 하나님 앞에선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요, 죄인 된 우리를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들어 쓰심에 감사하며, 비록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대학시절 막 성령을 받고 뜨겁게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 즈음, 가족들이 번갈아 극심한 두드러기 증세를 보이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 증세가 저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몸이 후끈한 느낌을 받아 깼더니 몸여기저기 두드러기가 올라와 극심한 가려움증에 몸이 전체적으로 붓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질 정도가 되자 저는 응급실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두려워하면 악한 마귀가 나를 비웃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비웃을 것이다. 당신이 자녀 삼았다는 자가 내가 건강만 건드리면 무서워 벌벌 떤다며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 아닌가? 내 믿음을 확증해보자!' 그 후 기도하며 축사하기를 1시간 쯤, 차츰 좋아지며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깨끗해진 몸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의사를 통한 의술을 무시하거나 병원을 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병원에서 7년 가까이 근무하며 의학이 얼마나 귀한 학문이자 인술(仁術)인지 잘 알고 있고, 당시 가족과 함께 응급실을 갔다고 해서 저를 책망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 사건을 통해 10년 전 일이 오버랩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때는 오히려 제한할 때가 있구나' 하는 반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집을 나르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할 통증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아닌 응급처치법부터 주사요법까지 수만 가지 인간적인 방법만 떠올랐습니다. 더욱이 철야예배와 주일예배에 가야 된다는 일념이 나로 하여금 타협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10년 전 두드러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번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시는 싸인이구나. 내가 이번에도 두려움을 뛰어넘기 원하시는데 하마터면 그 음성을 놓칠 뻔 했구나.' 이러한 마음 그 후에 월레스는 "나는 성경책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소."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벤허'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5:17).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

의 감동이 오자 저는 그대로 허리를 부여잡고 철야에 참석했고, 다음날 예배에도 뒤뚱거리는 불편한 걸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러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음성과 함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갑자기 허리에 새로운 힘이 들어가며 기쁨을 바른 듯 깨끗하게 치유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좋아진 모습에 주변인들은 무척 신기해했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과 동시에 그분께 집중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크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작은 일에 인간적인 생각이 밀려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제한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마음속에 울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과감히 순종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한받지 않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13:5)." **하인명**
renming@daum.net

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는 영·혼·육의 회복의 역사가 있고, 참된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분이 당신 삶의 인도자가 되어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한 뒤에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 명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스승이 특별히 한 제자만을 사랑하자 다른 제자들의 불평이 컸습니다. 그걸 눈치챈 스승이 모든 제자들을 부른 후 살아있는 새 한 마리씩을 나눠 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라."고 하자 제자들은 각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인다음 죽은 새를 스승에게로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만이 살아있는 새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너는 새를 죽이지 않고 살아 있는 채로 가지고 왔느냐?"고 묻자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머뭇 하더니 "스승님, 어디를 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 위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셨고, 또 땅에서는 나 자신이 이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새를 죽일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라며 울먹였습니다. 스승은 그저 빙그레 웃었고, 다른 제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꼭대기에도 바다 속에도 음부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시139:7~9).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또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묻는 나다니엘에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요1:48)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 신앙이 올곧을 것입니다.

Good News

성탄절 주간에 텔레비전에서 자주 방영해주는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59년 제작 당시 미화 1,500만 달러가 들어간 초호화 스펙터를 대작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육군 퇴역 장군인 '월레스'라는 소설가가 쓴 작품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월레스는 본래 무신론자이며 반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성경의 오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건강계좌를 채워라

대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은 알지만, 건강 습관을 쉽게 바꾸지는 못한다. 필자 역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를 하고 좋은 자료들을 접하지만, 막상 삶에서는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는 듯하다. 오늘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쉬운 습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다.
2. 신선한 식품을 먹는다.
3. 매일 움직인다.
4. 휴식을 더 많이 갖는다.
5. 매일 심호흡을 한다.

이 다섯 가지는 간단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땀 것도 없다. 건강 습관에 대해 조언할 때 대부분은 '햄버거를 먹지 마라', '피자를 먹지 마라'는 등의 이야기를 포함

시킨다. 하지만 어렵게 나쁜 습관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다보면 차츰 건강한 선택을 하기가 더 쉽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건강계좌를 채운다는 마음으로 위의 5가지를 습관화하기를 권하고 싶다. 물을 자주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불필요한 식욕의 저하와 체중감량에도 좋고 신체대사항상과 신장 세척에도 도움이 된다.

신선한 식품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하라는 의미이다. 책상에서 꼬마당근을 먹거나 운동 후 블루베리나 포도를 간식으로 먹으라는 의미이다.

매일 움직인다는 것은 식사량은 줄이지 않더라도 매일 출퇴근 시 왕복 3km 정도를 걷는다면 하루 250kcal 정도를 더 연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 5일 출퇴근한다고 가정하면, 1년 후에는 8kg을 감

량하게 된다. 적절한 체중감량은 당연히 당뇨, 심장질환, 암 위험을 감소시킨다. 휴식을 더 많이 갖는데 있어서 휴식은 수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휴식을 포함한다. 스마트폰 이메일, 스트레스로부터 머리를 쉬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얇은 호흡은 신체의 산소 수치를 떨어뜨리고 에너지 수준을 감소시키며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킨다. 주기적으로 의식적으로라도 심호흡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가져오며 신체적 이완효과를 볼 수 있다. 당연히 심박수와 혈압도 내려간다.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재산이다. 100세 건강계좌 채우기를 위해 5가지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주신 건강을 누리며 살아보자.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